

유니테스트 (086390.KQ)

바닥은 지났습니다!

Company Comment | 2019. 8. 27

해외 반도체 기업의 NAND 투자 확대, 2020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신규 투자 재개 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유니테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2분기부터 회복세

유니테스트는 20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액 800억원대를 기록하며 고성장세 시현. 그러나 메모리 시장 둔화로 고객사 신규 투자가 지연되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각각 200억원대의 매출 기록

2분기 매출액은 671억원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두 곳을 신규 고객사로 추가하며 SSD 테스터와 NAND 번인 테스터 수주. 2019년 매출액은 1,962억원, 영업이익은 343억원으로 추정

기존 고객사 투자 재개, 신규 고객사 확보

당사는 동사 최대 고객사의 2020년 신규 투자 규모를 DRAM 40K, NAND 40K 수준으로 전망함. 2019년 9조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 메모리 장비 투자 금액은 2020년 1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신규 추가된 고객사가 싱가포르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사의 SSD 테스터 매출액도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동사는 DRAM 웨이퍼 테스터를 신규 개발 중. 동 장비 시장은 일본의 아드반테스트(Advantest)와 미국의 테라다인(Teradyne)이 과점하고 있음. 최근 무역분쟁으로 인해 IT세트 업체들이 탈 일본 하고 있어 동사 장비 개발의 수혜 예상

고객사의 투자 재개, 신규 고객사 공급 계약으로 등을 고려해 동사의 2020년 실적을 매출액 2,550억원, 영업이익 535억원, PER 5.5배 수준으로 추정. 분기 매출액이 600억원 대로 회복되었고 지연되었던 투자 계획이 2020년 재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니테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

유니테스트 수주 상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고객사
2019.01.08	2019.01.08~2019.04.23	161억원	Hitech Semiconductor(중국)
2019.02.01	2019.02.01~2019.03.05	21억원	Nanya(대만)
2019.03.04	2019.03.04~2019.05.29	101억원	하이셈
2019.03.29	2019.03.29~2019.05.17	37억원	SK하이닉스
2019.05.14	2019.05.14~2019.06.14	76억원	Hitech Semiconductor(중국)
2019.07.17	2019.07.17~2019.10.10	317억원	Hitech Semiconductor(중국)

자료: 유니테스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Not Rated

현재가 ('19/08/26) **10,250원**

업종	반도체
KOSPI / KOSDAQ	1,916.31 / 582.91
시가총액(보통주)	216.6십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21.1백만주
52주 최고가 ('18/08/31)	19,250원
최저가 ('19/08/06)	9,640원
평균거래대금(60일)	5,470백만원
배당수익률 (2019E)	3.90%
외국인지분율	20.0%

주요주주	
김종현 외 8인	21.2%
Numeric Investors LLC	5.1%

주가상승률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	-18.0	-34.9	-44.4
상대수익률 (%p)	-2.9	-16.6	-23.9

	2018	2019E	2020F	2021F
매출액	282.3	196.2	255.0	305.0
증감률	67.5	-30.5	30.0	19.6
영업이익	71.5	34.3	53.5	67.0
증감률	119.5	-52.0	55.8	25.2
영업이익률	25.3	17.5	21.0	22.0
(지배지분)순이익	52.4	24.8	39.4	49.5
EPS	2,478	1,175	1,864	2,340
증감률	116.7	-52.6	58.7	25.5
PER	4.2	8.7	5.5	4.4
PBR	1.6	1.4	1.2	0.9
EV/EBITDA	2.0	2.8	0.7	-0.8
ROE	45.0	16.7	22.8	23.7
부채비율	34.6	48.0	64.0	85.4
순차입금	-70.3	-113.0	-177.1	-274.6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EPS, PER, PBR, ROE는 지배지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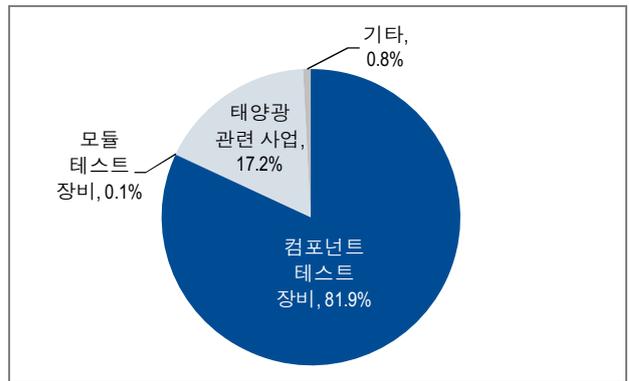
Analyst 손세훈
 02)768-7971, midas.sohn@nhqv.com
RA 장재호
 02)768-7083, jangjaeho@nhqv.com

기업개요

- 유니테스트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및 태양광 사업을 영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는 반도체 최종 단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 동사는 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스트 장비 시장에 진입해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며, 현재 SSD 테스터, DDR 컴포넌트 테스터, 모듈 테스터, DDR 고속 버닝 테스터, NAND 고속 버닝 장비를 생산
- 후공정 테스트는 컴포넌트(Component) 테스트와 번인(Burn in)테스트, 모듈 테스트로 구분.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일본의 아드반테스트와 미국의 테라다인이며 한국에서는 엑시콘과 유니테스트가 사업을 영위
-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와 대만 난야(Nanya)임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동사는 2015년에 설립한 유니솔라에너지와 유니청정에너지 지분 100%를 보유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을 영위

제품 및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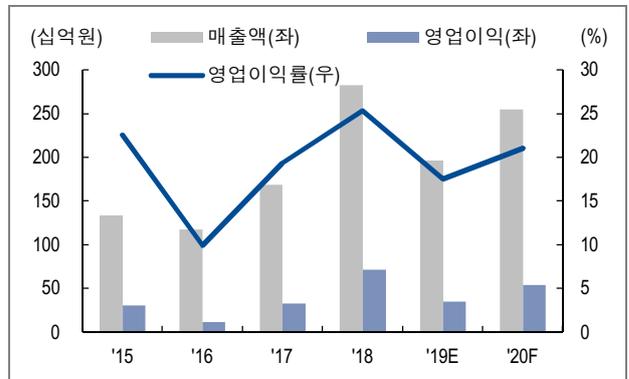
- 제품별 매출 비중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 장비 약 81.9%, 태양광 관련 사업은 17.2%, 메모리 모듈 테스트 장비 0.1% 순
- 2015년 DDR4용 고속 번인 Tester를 개발하여 국내 고객사에 공급 중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유니테스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영업 실적 추이

- 국내 반도체 업체용 SSD 테스터 매출액은 18년 522억원이 었으나, 2019년에는 25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20년에는 650억원으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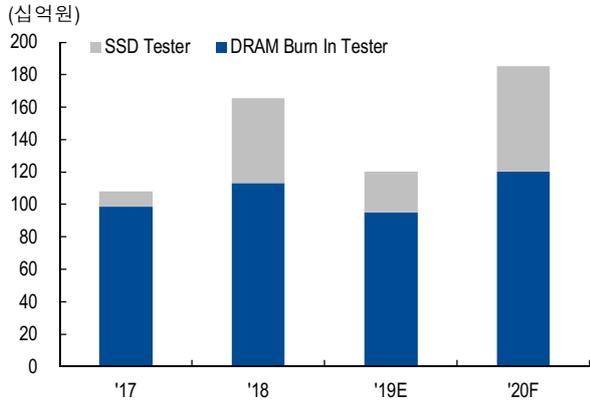
자료: 유니테스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과거 주가 추이 및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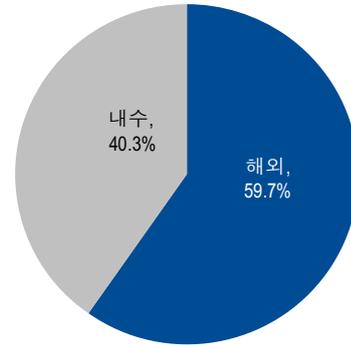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유니테스트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유니테스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2. 고객사 비중(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유니테스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기준)
 - 투자 의견 분포

Buy	Hold	Sell
76.7%	23.3%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유니테스트'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 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